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사무실 063-2400-241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음 10월 15일) 제241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종합패션 전문기업, 김제에 등지

전북도-김제시-코웰패션
본사 이전 투자협약 체결
용지면에 852억원 투자
660여명 신규 일자리 창출



송하진 도지사와 임종민 코웰패션(주) 대표이사,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8일 도청 접견실에서 코웰패션 투자협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8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박준배 김제시장, 임종민 코웰패션(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웰패션(주)과 852억원 규모의 본사 이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웰패션은 이번 투자협약으로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일원 11만1826㎡(3만3827평) 부지에 본사를 이전하고 전문복합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660여명의 직접적인 일자리가 창출(간접적인 일자리 포함 시 1000명)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웰패션은 Global Lifestyle Innovator라는 비전 아래 "양질의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글로벌 브랜드를 붙여서 많은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판다"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전 직원이 불철주야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 2012년 푸마버티웨어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시작으로 푸마, 리복,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와 협력해 베트남, 중국 등 양질의 생산공장에서 최상의 상품을 언더웨어,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접목해 매력적인 가격을 갖춘 고품질 상품을 시장에 출시했다.

이 같은 결과 2013년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고, 지난 5년간 지속적인 고성장을 이루면서 2017년 매출 3000억원 영업이익 600억원을 돌파했으며, 2025년에는 매출 1조원, 영업이익 22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힘차게 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10일 코웰패션은 향후 글로벌 브랜드 다각화 및 협력 관계 확대를 통한 사업구조 강화, 업무 효율 및 전문성을 높인 조직력 강화, 대형 물류센터 조성 및 종합 패션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미래 성

장 동력 확보 등이 포함된 중장기 계획 및 비전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코웰패션의 사업 부문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주력사업인 언더웨어 부문은 남·녀 기본 언더웨어 뿐만 아니라 기능성 언더웨어까지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소재 발굴 및 이이템 개발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브랜드 라인업 부문에서는 현재 푸마, 아디다스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라이선스와 명품 브랜드 수입 구조에서 향후 자사 브랜드 런칭, 유명 브랜드 라이선스 및 제조권 추가 확보로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 구조 향상을 도모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

으로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명품, 준명품 브랜드와의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잡화 부문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사업 효율을 높이는 데 매진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지난달에는 국내 화장품 기업인 참존을 250억원에 인수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코웰패션이 빠른 시일 내에 본사이전을 이루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전북도와 김제시가 모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개관 2주만 입장객 1만명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하루 평균 818명 다녀가
창의체험·놀이 어우러진
복합체험문화공간 '인기'

아울러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한 입장객도 33명으로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전북의 새로운 체험관광 장소로서 앞으로 전북투어패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하 어린이창의체험관)이 개관 2주 만에 누적 입장객 수 1만여 명(11월 7일 기준)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복합체험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21일 개관 이후 일 평균 818명, 총 1만2268명이 입장했으며, 무료로 개방하는 야외 놀이터와 잔디광장 이용객까지 감안하면 약 1만5000명이 창의체험관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평일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단체 입장객이 우세한 가운데 손자와 함께 방문하는 어르신 입장객(65세 이상 130명)이 눈에 띄었으며, 주말에는 가족 단위 입장객이 대부분으로 특히 조부모와 부모, 어린이가 함께 하는 3세대 가족 방문객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문객 추이는 체험관 내에 어린이 체험공간뿐 아니라 야외 놀이터와 잔디광장 등 가족 단위 아이들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휴식·생태 공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장애인 입장객은 215명으로 나타나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EF)본 인증 취득시설인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열린 놀이 공간을 입증했다. /김진성 기자

어린이창의체험관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국 각 기관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소방본부와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 등 어린이 관련 단체 5곳에서 내부 시설구성, 운영관리 상황 등 어린이체험시설 조성에 관한 선진기법을 배워 갔으며, 전남 여수 A초등학교의 교사 워크숍도 열릴 예정이다.

전북도는 개관 초기부터 쏟아지는 호응에 힘입어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설 체험공간인 4개 테마존 내 19개 체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입장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학·예술·요리 체험프로그램의 콘텐츠를 보완·강화해 만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11월부터는 '우리가족 소망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변 환경과 시설도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다.

유호연 관장은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개관 초기부터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최적의 장소로 나타나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EF)본 인증 취득시설인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열린 놀이 공간을 입증했다. /김진성 기자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반영...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오늘 도의회 제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기간단축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등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60억원(1.9%) 증가한 3조5351억원으로, ▲인건비 및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지속 추진, ▲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년도 보다 1007억원(3.3%) 증가한 3조1423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98억원(2.9%) 증가한 3530억원, 자체수입(145억원 감소) 및 전년

3조5351억 올해보다 1.9% 증액
무상급식·고교 2~3학년 지원

도 이월금(300억원 감소)은 445억원(52.8%) 감소한 398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동 1조6180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939억원, ▲교육복지지원 392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396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121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2985억원, ▲평생직업교육 72억원, ▲교육일반으로 1738억원을 편성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2.8%)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해 2조1527억원(전체예산의 60.9%)을 편성했고, 교육공무직 및 기타직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341억 원을 증액했다. 학교인건비는 2020~2022년도 교고에

정인 전주자연초 등 16교에 760억원, 학급증설에 9억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에 55억원 등 모두 83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비 지원 단가를 200원(특수학교 400원) 인상해 무상급식 지원에 1315억원을 편성했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2~3학년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지원에 356억원을 반영했으며, 그 밖에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594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2502억원과 무상교육을 위한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해 1246억원(유치원 594억, 어린이집 652억)을 반영했다.

교실 내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안전한 학교체육 시설 설치,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 등 학생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해 561억 원, 학교운동부 훈련 여건 조성,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 특성학교 환경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에 588억원을 반영했으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949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해 혁신학교 운영과 혁신교육특구 운영 등 학교 혁신지원을 위해 61억 원을 편성했으며, 학습더딤 원인별 맞춤형 지원 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45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제출되는 2020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368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약학대학, 편입제 통해 첫 신입생 선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약학대학은 편입제도를 통해 첫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5면)

인원은 33명(정원 외 포함)이다. 정원의 50%인 15명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다.

원서접수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전북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nu.ac.kr) 또는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진학사 http://jinhakapply.com)에서 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입학원서 및 지원서류는 18일 오후 6시까지 입학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접수는 국내 우체국 18일 소인까지만 유효하다.

지원자격은 대학 2학년 이상 과정을 수료(예정)하고 당해 연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공식 성적을 보유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